

2017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요한의 보수하는 사역

메시지 10

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참 포도나무

성경: 요 15:1-17

- I. 가지들이 있는 참 포도나무 —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가지신 아들 그리스도 — 는 삼일 하나님의 풍성으로 자라며,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— 딤편 1:4, 엠 3:9, 요 15:1, 5 상.
- A. 아들의 표징인 참 포도나무의 기능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변성과 확산과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아들 안에 있는 한 유기체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— 요 15:8, 16.
 - B. 농부이신 아버지는 근원이자 창시자이시다. 아들 하나님은 중심과 체현과 나타남이시고 영 하나님은 실재와 실재화이시며 가지들은 단체적인 표현인 몸이다 — 요 15:1, 4-5, 26.
 - 1.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었고 그 후에 실재이신 그 영 안에서 실재화되었다 — 요 16:13-15.
 - 2. 그 영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져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증언된다. 이런 방식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표현되시고 나타내시며 영광스럽게 되신다 — 엠 3:16-21.
 - C. 요한복음 15 장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신 것이다 — 요 14:20.
 - 1. 삼일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제자들과 서로 함께 상호내재하신다 — 요 15:4-5.
 - 2.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이러한 확대되고 우주적이며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이다.
- II.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변성, 그리스도의 복사판, 그리스도의 확산, 그리스도의 확대이다 — 요 15:4-5, 16.
- A. 무한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다.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지들이며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이다 — 고전 6:17.
 - B. 우리는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, 곧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다 — 요일 5:11-12.
 - C. 우리가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, 그분은 우리 안으로 가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가지들이 되었다 — 요 3:15.
 - D.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뜻한다 — 요 11:25, 14:6, 골 3:4.
 - E. 포도나무는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다. 포도나무로부터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, 우리는 가지들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— 요 15:4.
 - F.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가지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.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없으면 그분께서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 — 요 15:5.

III.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— 요 15:4-5.

- A.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연결에 속한 문제이다.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통에 속한 문제이다 — 고전 1:9, 30.
- B.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이상을 분명히 보는 것에 달려 있다. 일단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을 본 후에 우리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— 요 15:2.
- C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— 요일 2:24, 27-28, 4:13.
- D.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이다 — 고전 6:17.
- E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의 조건이다 — 요 15:4 상, 5 상.
- F. 포도나무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— 요 15:5 하.
- G.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만 포도나무는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.

IV. 가지들은 신성한 분배 안에서 아버지의 풍성들을 표현하도록 열매를 맺기 위해 있다 — 요 15:8, 16.

- A. 교회의 유기적인 증가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의 열매 맺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변성이다 — 요 15:5 상.
- B. 가지들의 면에서 우리에게는 열매 맺음 안에서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들의 표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— 요 15:8.
- C. 8 절에 있는 '영광을 받으시고'라는 말은 많은 열매들 안에서 표현되며 해방된 의도와 내용과 생명과 풍성들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.

V.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결과이다 — 요 15:7.

- A.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갈망이 있게 될 것이다.
- B. 우리는 주님의 느낌을 만지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.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그분의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.
- C. 그분의 갈망은 우리의 갈망이 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갈망에 따라 기도하게 될 것이다.
- D.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.

VI.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갖는다 — 고전 1:2, 9, 30, 6:17, 12:27.

- A. 가지들은 포도나무와 하나이며 서로와 하나이다 — 요 17:11, 21-23.
- B.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지들 사이의 놀라운 교통에 참여한다. 모든 가지들의 속생명은 하나이며 이 생명은 모든 가지들을 통해 계속해서 순환해야 한다 — 요 15:4-5, 요일 1:7.
- C. 교회 생활, 곧 몸의 생활은 서로를 사랑하는 생활이다. 몸의 생활은 사랑에 속한 생활이며 사랑 안에 있는 생활이다 — 요 15:12, 17, 엡 4:16, 5:2.
- D. 우리는 오직 연합된 영 안에서, 즉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함으로써만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다.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해 이 연합된 영 안에 머물러야 한다 — 고전 15:45 하, 6:17, 1:2, 12:27.